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조경완



오늘날 광주는 독특한 모습 속에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민주·평화·인권...

다. 따라서 광주는 마르지 않는 평화의 샘이 되어 온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도 광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굳이 시민을 희생한 최악의 인권 유린에 대해 온 시민이 떨쳐 일어난 것은 인권...

광주에서 살아가기

에 대해 온 시민이 떨쳐 일어난 것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정신의 발로였다...

그러나 광주는 민주·평화·인권의 도시라는 형이상학의 월계관을 쓴 뒤로 형이하학적으로는 배고팠다.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호남 푸대접이라 배가 고프니...

물의 호남선에도 케이티엑스 열차가 달리고 광주에 5·18 보상금이 끼여있어도...

광주는 첨단산업을 지향한다고 했다. 늦은 만큼 공해없고 부가가치 높은 전자 부품산업...

옛 전남도청 자리에 지어질 아시아문화전당을 놓고도 충돌한다. 광주사람들은 평화인권을 담은 문화시설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고 작은 지역감투를 놓고도 충돌한다. 시청에서 집행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충돌한다. 5·18 재단의 주도권 행사를 놓고도...

교육문제를 놓고도 충돌한다. 광주사람들은 더불어 살 줄 아는 민주주의 교육이 중요하지 청소년들을 공부기계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사람들

옛 전남도청 자리에 지어질 아시아문화전당을 놓고도 충돌한다. 광주사람들은 평화인권을 담은 문화시설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고 작은 지역감투를 놓고도 충돌한다. 시청에서 집행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충돌한다. 5·18 재단의 주도권 행사를 놓고도...

시설

기아차 노조 또 파업, 회사 망칠 셈인가

기아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3일 광주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 일체 8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기아차는 지난달 그동안 기본금 12만8천805원 인상, 생계비 부족분 통상임금 200% 지급, 사내 모듈공장 유치 등의...

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한때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상황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노조는 ‘갑근함’을 위한 파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데 성과급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회사는 이번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법파업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파업관행을 끊을 수 있다...

회사는 이번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법파업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파업관행을 끊을 수 있다...

사학법·로스쿨법 처리 합의 환영한다

논란이 되어온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이 마침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간에 합의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로스쿨 법안의 경우 전국 각 대학의 관심속에 국회에 상정된 지 무려 1년 9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로스쿨 법이 뒤늦게나마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로스쿨 법안을 다음국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은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며 속앓이를 해야 했다. 전국 40개 대학들은 당게는 수백억원씩 투자해 건물을 짓고 교수진을 보강했지만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야 했다.

로스쿨 법은 법조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법률시장은 5년 안에 완전 개방된다.

로스쿨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대량으로 배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대학들이 로스쿨에 대학의 장래를 걸고 있을 만큼 관심이 높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은 로스쿨 법안 처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여론을 외면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기득권에 급급해진 민심도 정당과 정치인을 언젠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로스쿨 법안 처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여론을 외면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기득권에 급급해진 민심도 정당과 정치인을 언젠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창균. 세상 변화가 너무도 빨라 어지러운 지경이다. 대중 매체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어지럽고 바쁘게 움직여 간다.

기고 오건탁.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한 곳에 모아져 있었다.

디지털 세대의 역사. 되고, 휴대전화의 용도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 세대들은 문화의 소비자에서 문화의 생산자가 된다. 청소년 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이 없다면 인터넷 게임, DVD, 위성 채널, DMB, SF, 애니메이션 등 복합 시각 문화는 생각할 수도 없다.

‘쇼 현대미술 메카’ 현대미술관 필요하다. 양한 부가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나 작품만을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작가들이 그들과 함께 전시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은 광주 문화예술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최상의 조건이 될 것이다.

無等鼓. 요즘 인도에 1루피 동전 품귀현상이 심각하다. 동전으로 불법 면도기를 제작, 방글라데시에 밀수출해 고수익을 올리는 잡화상으로 동전이 동이 나고 있다.

문화수도 광주, 시민들 문화의식은 부끄럽다. 얼마 전 시내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훌륭한 복합상영관이다. 좌석에는 팔걸이도 따로 부착되어 있어서 편한 자세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퇴직금 지급 의도적으로 미룰 땐 이자까지 산정해야. 남편은 지난 3월 7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물론 더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그만둔 것이다. 사실상 정리해고 당한거라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광주일보)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